

開化期 修身 教科書《倫理學教科書》의 漢字語 翻譯에 대하여

이안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일본의《新編倫理教科書》를 저본으로 하는 신해영의《倫理學教科書》(1906)를 대상으로 하여 일본어 원문의 한자어가 번역되는 양상을 살폈다. 개화기에는 서구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신생 한자어들이 다수 유입되었는데 개화기의 신생 한자어들은 비교적 쉽게 국어 어휘 체계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 한자어나 다른 신생 한자어들과 공존하며 경쟁하다가 점진적으로 정착하기도 하며 의미 변화를 겪기도 한다. 본고에서는《倫理學教科書》와 그 저본이 되는 일본어 문헌을 비교하여 개화기 신생 한자어가 일본어 원문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가 전통 한자어로 번역되는 경우,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가 공존하는 경우, 비슷한 의미의 신생 한자어들이 공존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각 몇 가지 예를 검토하였다.《倫理學教科書》와 같이 일본의 문헌을 저본으로 하는 개화기 번역 텍스트는 일본어를 통한 한자어의 수용과 변용, 서구 신문물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과도기적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倫理學教科書》는 개화기 어휘 연구에 있어서 아직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상명사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주제어: 《倫理學教科書》, 번역 텍스트, 개화기 신생 한자어, 한자어의 수용과 변용

1. 들어가며

개화기에는 서구 근대 문물의 수입과 함께 새로운 어휘나 표현들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특히 신생 한자어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전통적으로 그러하였듯 중국을 통해 새로운 한자어들이 들어왔으나 점차 일본을 매개로 하여 근대적 지식과 문물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본에서 만든 신생 한자어들이 다수 수입되었다. 개화기 텍스트 중 일본의 문헌을 저본으로 하는 번역 텍스트는 일본어를 통한 한자어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개화기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의 공존 및 교체 양

상 등을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어학 연구에 있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개화기 修身 教科書 중 하나인 신해영의 《倫理學教科書》(1906)는 1897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井上哲次郎·高山林次郎의 《新編倫理教科書》를 저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역사나 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을 뿐 국어학적 측면에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倫理學教科書》의 번역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살피는 한편, 개화기 신생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여 《倫理學教科書》에서 한자어가 번역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개화기 번역 텍스트로서의 《倫理學教科書》

신해영의 《倫理學教科書》가 井上哲次郎·高山林次郎의 《新編倫理教科書》를 저본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는 김소영(2011)과 박학래(202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해영은 1895년부터 3년간 일본 慶應義塾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후, 황실 재정을 바탕으로 한 보성전문학교(1905년 개교)와 보성중학교(1906년 개교)의 교장을 맡아 교육 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학부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신해영이 《倫理學教科書》를 편술한 것은 보성중학교의 ‘修身’ 과목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박학래(2021)에 따르면 보성중학교 개교를 위한 준비 기간의 제약과 ‘수신’ 과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본의 중등 수신 교과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당시 일본의 중등 수신 교과서로 널리 쓰이고 있던 井上哲次郎·高山林次郎의 《新編倫理教科書》를 번안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

다음의 <표1>은 일본《新編倫理教科書》와 신해영의《倫理學教科書》의 목차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井上哲次郎·高山林次郎의 《新編倫理教科書》와 신해영의 《倫理學教科書》 목차²⁾

*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准教授. 본 연구는 JSPS 科學研究費 JP21K00651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5년 3월 國立高雄大學 韓國研究센터의 國際學術會議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개화기 교과서 중에는 일본의 교과서를 저본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최초의 근대적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국민소학독본》(1895)은 일본 문부성의 《高等小學讀本》(1887)을 참조한 것이다. 이안구(2020), 李安九(2025)에서는 《신정심상소학》(1896), 《초등소학》(1906) 등 개화기 독본류 교과서에 나타나는 일본 교과서의 영향에 대해 살핀 바 있다.
- 2) 《新編倫理教科書》가 總說을 포함한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倫理學教科書》는 총설 부분이 빠진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新編倫理教科書》 총설 부분의 목차

권	《新編倫理教科書》(1898)	권	《倫理學教科書》(1906)
1	己を修むるの道 第一章 總論 第二章 體育 第三章 朋友慣習及び勤勉 第四章 自制 第五章 勇氣 第六章 修學 第七章 修德	1	修身호는 道 第一章 總論 第二章 體育 第三章 朋友慣習과 및 勤勉 第四章 自制 第五章 勇敢 第六章 修學 第七章 修德
2	家族の本務 第一章 總論 第二章 父母に對する本務 第三章 父母の本務 第四章 夫婦の本務 第五章 兄弟姉妹の本務 第六章 家に對する本務 第七章 親戚及び主從 知人の本務 第八章 朋友の本務 第九章 師弟の本務	2	家族의 本務 第一章 總論 第二章 父母에 對호는 本務 第三章 父母의 本務 第四章 夫婦의 本務 第五章 兄弟 姉妹의 本務 第六章 家에 對호는 本務 第七章 親戚과 및 主從 親知의 本務 第一章 朋友의 本務 第二章 師弟의 本務
3	第一章 社會總論 第二章 社會の公義 第一節 生命に關する本務 第二節 財産に關する本務 第三節 名譽に關する本務 第三章 社會の公德 第一節 博愛及び公益 第二節 禮讓及び禮文	3	第一章 社會總論 第二章 社會의 公義 第一節 生命에 關호는 本務 第二節 財産에 關호는 本務 第三節 名譽에 關호는 本務 第三章 社會의 公德 第一節 博愛와 및 公益 第二節 禮讓과 및 禮文

는 생략하기로 한다. 《新編倫理教科書》는 1897년에 간행된 후 다음 해인 1898년에 訂正再版本이 나왔는데, 訂正再版本에서는 초판의 서두에 있던 ‘新編倫理教科書敍’가 빠졌을 뿐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학래(2021:203)에서도 언급되었듯이 訂正再版本의 목차에서는 초판의 ‘義務’가 모두 ‘本務’로 바뀌었는데 《倫理學教科書》의 목차가 모두 ‘本務’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倫理學教科書》는 1898년의 訂正再版本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김소영(2011:27)에서도 《新編倫理教科書》와 《倫理學教科書》의 목차를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는데 목차 내용은 訂正再版本의 것을 제시하였으나 자료 출처에는 1897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第一章 國家總論	4	第一章 國家總論
	第二章 國民の本務		第二章 國民의 本務
	第三章 愛國心		第三章 愛國心
	第四章 皇室に對する本務		第四章 皇室에 對한 本務
	第五章 國際の本務		第五章 國際의 本務
	第六章 結論		第六章 結論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권1과 권2에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권3과 권4에는 제목이 없으며, 두 문헌은 목차나 구성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³⁾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리나라,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에 적합한 용어나 기술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국가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권4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⁴⁾

3. 개화기 신생 한자어와 《倫理學教科書》의 한자어 번역 양상

앞서 언급했듯이 개화기에는 서구 문물의 수용으로 새로운 한자어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倫理學’이나 ‘教科書’라는 한자어 역시 서구 근대 문물의 수입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신생 한자어로, ‘윤리학’은 《新編倫理教科書》의 저자인 井上哲次郎가 ‘ethics’에 대한 번역어로 채택한 것이다.⁵⁾ 3장에서는 일본어 저본인 《新編倫理教科書》에 쓰이는 한자어들이 신해영의 《倫理學教科書》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한자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漢語大詞典》, 《日本國語大辭典》(온라인판)의 예문 및 語誌 정보를 참조할 뿐만 아니라 《韓佛字典》(1880), 《韓英字典》(1895) 등 개화기의 국어사전 및 개화기 문헌 자료의 용례를 확인하고 이한섭(2014)이나 송민(2001a, 2002, 2007, 2018), 愼卿正明·飛田良文(1986)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 3) 목차에 쓰인 한자어 중 굵게 표시한 권1의 제5장 ‘勇氣’와 권2 두 번째 제목의 ‘知人’이 각각 ‘勇敢’, ‘親知’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중 ‘知人’은 전통 한문에서 述目 구조로 쓰이고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親知’로 수정된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韓佛字典》(1880)과 《韓英字典》(1897)에는 ‘知人 ㅎ다’라는 용언의 형태만 등재되어 있다.
- 4) 김소영(2011:25~35)에서는 신해영이 수정하거나 새롭게 기술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제4권의 제1장 ‘國家總論’ 부분에 달려 있는 소제목과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 5) 《日本國語大辭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井上哲次郎는 메이지 시대에 난립하고 있던 번역 한자어들을 정리한 학술용어집 《哲學字彙》(1881)의 편찬에 중심인물로 관여하였는데, ‘윤리학’은 《哲學字彙》에서 ‘ethics’에 대한 번역어로 제시되었다.

3.1.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

다음의 (1)은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가 《倫理學教科書》에 그대로 쓰인 경우이다.⁶⁾

- (1) 가. 大抵 生活의 資料를 供給하야 公私 百般의 本務를 能盡케 하는 者는 財産이오 吾人
으로 하여금 財産의 使用 收益 處分을 自由케 하는 者는 所有權이니 所有權의 確
立함은 社會의 安寧을 維持하야 其 幸福을 增進하는 바의 一大 標準이 되어 未開
國과 文明國의 差別이 茲에 存在하니라. <권3 제2절 財産에 關한 本務>
- 나. 蓋し生活の資料を給し、公私百般の本務を盡すことを得しむる者は財産なり。自由に
吾人をして財産の使用、収益、處分を為さしむるものは所有權なり。所有權の確立は
社會の安寧を維持し、其幸福を増進する所以の一にして、未開國と文明國との差別の
存する所なり。<권3:41>

(1가)에서 밑줄 친 한자어 ‘資料’, ‘所有權’, ‘社會’, ‘幸福’은 개화기에 새로 도입된 서구식 개념을 나타내는 신생 한자어이다. 이 중 ‘資料’나 ‘所有權’ 같은 경우는 전통 한문에서 쓰이지 않던 한자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社會’와 ‘幸福’은 중국 고전에 전거를 두는 한자어가 ‘society’, ‘happiness’라는 서구의 신개념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면서 새로운 의미로의 변화, 의미 개신이 일어난 경우이다.⁷⁾

한편 (1가)에 쓰인 한자어 중 굵게 표시한 ‘自由’ 역시 선행 연구에서 신생 한자어의 예로 다루어지는데, 다만 (1가)의 예문에 쓰이는 ‘自由’는 ‘liberty, freedom’이라는 서구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는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마음대로’라는 전통적 용법으로 쓰인 예라 볼 수 있다. 물론 《倫理學教科書》에는 전통적 용법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自由’도 확인된다. 다음의 (2)에 그 예를 제시해 둔다.⁸⁾

- 6) 본고에서 제시하는 《倫理學教科書》의 예문은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0》에 실려 있는 텍스트에 의거한 것이다. 저본에 해당하는 일본어 원문은 권1, 2와 권3, 4가 각각 한 책으로 묶여 있는 1898년 再版本의 것을 사용하며 해당 책의 쪽수를 제시한다. (이하 동일)
- 7) 《日本國語大辭典》에 의하면 ‘社會’는 《近思錄》에 나온 말이며 ‘幸福’은 ‘복을 빌다’의 의미로 《新唐書》에 전거를 둔다. ‘社會’는 송민(2018)에서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번역용 신생어의 예로 제시되었으며 ‘所有權’은 일본에서 창안된 번역용 신생어로 언급되었다. 이한섭(2014)에서는 ‘資料’, ‘所有權’, ‘幸福’, ‘社會’ 모두 일본에서 들어온 신생 한자어로 다루어졌다. 이 밖에 예문 (1가)에 쓰인 한자어 중 ‘收益’, ‘未開國’, ‘文明國’ 역시 개화기 신생 한자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8) ‘自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송민(2001b, 2018)을 참조할 수 있다. ‘自由’ 역시 본래 중국의 고전에서 쓰이던 한자어였는데 근대 일본에서 서구식 개념을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가

(2) 가. 大抵 身體 意志의 自由를 減殺하야 不得已인 情勢로 他的 指揮를 甘受 俯從함은 婢僕으로브터 見은 즉 本來 必要인 事 | 나 또한 人生의 7장 不幸인 境遇라 謂할지라 <권2 제7장 親戚과 및 主從>

나. 蓋し身體意志の自由を殺ぎて已むを得ず甘んじて他の指顧に従ふは、婢僕より之を見れば素より必要な事たりと雖も、又人生の尤も不幸なる境遇なりと謂はざるべからず。<권2:80>

위의 예문에서 ‘自由’는 ‘신체 의지의 자유’와 같은 서구식 개념의 명사로 쓰인 경우이다.

이 밖에도 《倫理學教科書》에는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개화기에 새로 생겨났거나 의미 개신을 경험한 신생 한자어들이 다수 쓰이고 있다. 이 중 많은 경우는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어 원문과는 다른 한자어로 번역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그러한 예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3.2.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가 전통 한자어로 번역된 경우

먼저 예문 (3)은 일본어 원문의 ‘拒否’가 ‘拒絶’로 번역된 경우이다.

(3) 가. 古代에 一個 心理學者가 非常인 難行勤苦로써 一切의 快樂을 拒絶코져 한 者 | 有하니 此는 다만 性を 戕하고 心を 害함에 止할 뿐이오 道德에 裨益인 바는 尠하니라 <권1 제4장 自制>

나. 古代の或る宗教徒が非常なる難行苦勤に由りて、一切の快樂を拒否せんとせしが如きは、徒に性を傷け、心を破るのみにして、道德に裨益する所甚だ尠し。<권1:43>

(3나)의 일본어 원문에 쓰인 ‘拒否’는 ‘negation’에 대한 번역어로 생겨난 신생 한자어인데 《倫理學教科書》 전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社會’나 ‘幸福’, ‘自由’와 같은 신생 한자어들은 19세기 말부터 개화기 문헌에서 용례가 보이는 것에 비해 ‘拒否’의 경우는 1903년의 황성신문의 예를 찾을 수 있다.⁹⁾ 아마도 일본어

추가되면서 의미상 확대를 겪은 것이다.

9) 1903년 황성신문의 예는 아래와 같으며, 한 문장에서 ‘拒否’와 ‘拒絶’이 함께 쓰이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매일신보(1907, 1910)나 관보(1909) 등에서도 ‘拒否’의 용례가 확인된다.

원문의 ‘拒否’를 그대로 쓰기에는 당시 국어에서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여 유사한 의미의 기존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拒絕’은 전통 한문에서 쓰이던 한자어로 《국한회어》(1895), 《한영사전》(1897)에도 실려 있다.¹⁰⁾

다음의 (4)는 ‘理性’을 ‘性理’로 번역한 경우이다.

(4) 가. 임의 養育의 本務가 有호 즉 父母는 其 子의 健康함을 保全호는 責을 自任치 아니
치 못홀지니 幼兒는 性理가 아직 十分 發達치 못호야 攝養健康의 道를 自辨치 못함
으로써 | 니라 <권2 제3장 父母의 本務>

나. 既に養育の本務あり。隨て父母は其子の健康を保全するの責に任ぜざるべからず。是れ幼兒は理性未だ十分に發達せざるを以て、自ら能く攝養健康の道を辨知せざればなり。<권2:38-39>

‘理性’은 전통 한문에서 ‘性情을 涵養하다’, 혹은 ‘本性’, ‘道理’의 의미로 쓰이던 한자어인데, 새로운 개념인 ‘reason’의 번역어로 의미 개신을 겪은 경우라 할 수 있다. 《倫理學教科書》에 ‘理性’이라는 한자어는 확인되지 않으며 ‘性理’의 다른 예(아래의 예문 (12)) 역시 ‘理性’을 번역한 것이다. 아마도 ‘理性’이라는 원문의 한자어를 그대로 쓰기에는 서구적 개념을 뜻하는 한자어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¹¹⁾

다음으로는 일본어 원문의 ‘支配’를 다른 한자어로 번역한 경우를 살펴기로 한다.

(5) 가. 大凡 人は 本來 感情에 牽引되는 바 | 多호니 <권3 제3장 社會의 公德 제2절 禮

又慶親왕이 親近호 一武官에게 談話호야 曰 淸國은 日公使의 警告도 有호야 俄國의 要求를 不當호 줄노 信호나 奈何오 勢力이 乏호야 斷然히 拒絕키 不能호고 오죽 依賴호난 바난 日本 뿐이로디 日本態度가 亦模糊호야 淸國이 拒否決定에 迷惑케 함이 有호다 호야 頗히 愾然호 模樣이라더라 <‘俄國要求와 淸國’, 皇城新聞 1903년 9월 25일>

10) 《한영사전》(216쪽)에는 ‘거절하다’가 표제어로 실려 있는데, 그에 대한 기술을 아래에 제시해 둔다.

거절하다 / 拒絕(막을)(끈홀) To cut off communication with; to withdraw from. See 끈타.

11) ‘理性’은 송민(2018:15)에서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번역용 신생어의 예로 언급된 바 있다. 한편, 근대적 의미를 나타내는 ‘理性’의 용례로는 이한섭(2014:638)에 제시된 아래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인성을 들어 말할진대 지력 있는 리성(理性)이 잇서 물테로 더브러 아조 상반호니 유물진화 | 혹 동식광 삼계(動植鑿 三界)를 혼합호고 《寶鑑》 부록 ‘휘집 2권-론설’ 1906-1910)

讓 및 禮文)

나. 蓋し人は素感情に支配せらるること多きものなり。〈권3:85〉

(6) 가. 如斯히 憲法은 一國 主權의 行動을 規定하고 臣民의 權利 義務를 管理하는 바 大
典이 됨으로써 國家를 成立한 者는 반드시 一定한 憲法이 無지 못할지니 〈권4 제1
장 國家總論〉

나. 斯の如く、憲法は一國主權の行動を規定し、臣民の權利本務を支配する所の大則なるを
以て、苟も國家を成すものは、必ずや亦一定の憲法を有せざるべからず。〈권4:14〉

(5)의 ‘(감정에) 支配되다’는 ‘牽引되다’로, (6)의 ‘(권리 의무를) 支配하다’는 ‘管理하
다’로 번역되었는데, 《倫理學教科書》에서 ‘支配’라는 한자어는 확인되지 않는다.¹²⁾ ‘支
配’는 전통 한문에서 ‘按配하다’, ‘統治하다’의 의미로 쓰이던 것이었으나 ‘외부의 요인
이 영향을 미치다’라는 새로운 뜻으로의 의미 개신이 일어난 경우로 볼 수 있다.¹³⁾

3.3.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가 공존하는 경우

여기에서는 유사한 의미의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 (7)-(9)는 모두 일본어 원문에서 ‘目的’이 쓰인 경우이다.

(7) 가. 道德의 目的은 要컨대 社會 國家의 安寧 繁昌함을 依호야 個人의 幸福을 增進함에
在함이니 〈권2 家族の本務 제1장 總論〉

나. 道德の目的は、之を要するに、社會國家の繁榮に本づきて個人の幸福を増進するにあ
り。〈권2:2〉

(8) 가. 運動의 本意는 身體機能의 活動함을 幫助하고 兼호야 勉學人의 元氣를 長養함에 在
함지라 〈권1 제2장 體育〉

나. 運動の目的は、體機の活動を補助し、傍ら勉強讀書の元氣を養ふにあり。〈권1:17〉

12) ‘支配’를 번역한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예가 확인된다. ‘暴力의 支配를 벗어나지 못하다’라
는 뜻의 일본어 원문이 ‘腕力에 全依하다’와 같이 번역되었다. 참고로 ‘暴力’ 역시 개화기
신생 한자어라 생각된다.

가. 自國의 強大함을 恃호야 弱小한 者를 抑壓하며 自國의 利益을 爲호야 他邦의 膨脹함을
妨害함은 其 舉措의 不正함이 更言할 바 | 아니나 世界 今日의 實際 狀況은 아직 腕力을
全依호느니 〈권4 제5장 國際의 本務〉

나. 自國の強大を恃みて弱小を壓し、自國の利益の爲めに他邦の膨脹を妨げるが如きは、不正の
舉動なること言を待たずと雖も、世界今日の實勢は未だ暴力の支配を脱せず 〈권4:83〉

13) ‘支配’는 송민(2018:15)에서 중국 고전에 전거가 있는 번역용 신생어의 예로 제시되었다.

(9) 가. 熱情도 또한 善히 節制함이 可하니라 大凡 人은 感情의 動物이니 一次 一個 事物에 對하야 甚흔 興味를 感動할 時는 魂迷 心奪하야 反省 顧慮할 餘地가 無하고 一意로 此에 聽從함이 되며 甚至於 自他에 對한 義務를 抛擲하고 오히려 其極點에 到達치 못하면 不已하는 者 | 有하니 <권1 제4장 自制>

나. 熱情も亦能く制せざるべからず。抑も人は感情の動物なり。一たび一の事物に對して 甚深なる興味を感じる時は、魂迷ひ、心奪はれ、省察顧慮の隙を容れず。一意是に聽從執着し、甚しきに至りては、自他に對する本務を抛擲して、尚ほ且其目的に到達せざれば已まざるものあり。<권1:45>

‘目的’은 ‘end’에 대한 번역어로 생겨난 개화기 신생 한자어이다. 예문 (7)과 (8)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지니는데, (7)에서는 일본어 원문 그대로 ‘目的’이 사용되었으며, (8)에서는 ‘本意’라는 한자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9)는 일본어 원문의 ‘目的’에 대해 ‘極點’이라는 한자어가 쓰인 경우이다. ‘極點’은 개화기 문헌에서 보통 ‘극(점)’에 달하다(達於極點)와 같이 쓰이며 ‘極點’이 ‘目的’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다른 용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¹⁴⁾

다음으로는 일본어 원문의 ‘意志’에 대한 대역어로 쓰이는 한자어들을 살펴기로 한다.

(10) 가. 然이나 疑難을 空懷하야 他를 排斥하고 스스로 悟了하는 意志가 無흔 者는 또한 學問의 何件物됨을 不知하는 者 | 니 疑問은 學問의 方法이오 學問의 目的은 아니니라 <권1 제6장 修學>

나. 然れども夫の猥に疑を懷きて他を排斥し、而して自ら悟了するの意志なきものは、是れ學問の何たるを解せざるの徒と云ふべし。疑問は學問の方便なりと雖も學問の目的には非ざるなり。<권1:91>

(11) 가. 萬一 吾人으로 好여금 他人의 利益 情欲의 願使하는 바 | 되어 自身이 自由의 意思로 行止云爲함이 不能할진대 道德上에 在흔 生命 身體의 價値는 茲에 全然히 失墜하엿다 謂할지니라 <권3 제2장 社會의 公義 제2절 財産>

나. 若し吾人にして他人の利益情欲の願使する所と為り、自己が自由の意志よりて云為すること能はずんば、道德上に於ける生命身體の價値は、茲に全く失墜したりと謂

14) ‘目的’은 송민(2018:17)에서 일본에서 창안된 번역용 신생 한자어로 제시되었으며, ‘極點’은 《한불자전》이나 《한영자전》에 실려 있지 않다. (9)에서 ‘目的’이 ‘極點’으로 번역된 데에는 두 가지 모두 ‘end’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듯하다.

はざるべからず。〈권3:36〉

(12) 가. 故로 吾人은 明確호 性理와 堅強호 志氣에 基因호 自制의 力으로써 恒常 情慾의 跋扈함을 牽制호야 써 中正의 道를 維持함이 可호니라 〈권1 제4장 自制〉

나. 是を以て吾人は明確なる理性と堅強なる意志の上に基ける自制の力を以て、常に情慾の跋扈を拘束し、以て其中正を維持せざるべからず。〈권1:33〉

(13) 가. 萬一 惠施호는 本意가 真正호 博愛 同情의 精神으로 出호 者 | 아니오 도로혀 外面 虛飾 等を 爲호 ば | 될 時는 其 物品이 비록 夥多홀지라도 些少도 贊賞홀 ば | 아니오 찰하리 僞善者로 認호야 批難함이 可호니라. 〈권3 제3장 社會의 公德 제1절 博愛와 冥 公益〉

나. 若し之を施與するの意志にして、真に同情博愛の精神に出でたるものに非ず、却て外見虚飾等の為にするものならんには、其物品如何に夥多なりとも毫も賞揚すべきことに非ず。寧ろ偽善者として批難すべきものなり。〈권3:71-72〉

(10)에서는 일본어 원문 그대로 ‘意志’가 쓰였으며 (11)은 원문의 ‘意志’가 ‘意思’로, (12)는 ‘志氣’로, (13)은 ‘本意’로 번역되었다. ‘意志’와 ‘意思’는 모두 전통 한문에서 쓰이던 한자어들인데 《日本國語大辭典》의 語誌 설명에 따르면 ‘意志’는 Medhurst의 《英漢辭典》(1847-48)에서 ‘idea, motive’의 대역어로 쓰였으며 ‘意思’는 Morrison의 《字典》(1815), Medhurst의 《英漢辭典》(1847-48), Lobscheid의 《英華字典》(1866-69) 등에서 ‘idea, motive, will’ 등의 대역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哲學字彙》(1881)에서는 ‘will’에 대한 대역어로 ‘意志’가 쓰이고 《知致啓蒙》(1874)에서는 ‘意思’가 사용되는 등 ‘意志’와 ‘意思’의 혼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후에 ‘意志’는 주로 철학과 심리학 용어, 그리고 ‘意思’는 법률 용어로 쓰임이 나뉘게 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意志’에 대해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풀이 외에 ‘심리’와 ‘철학’ 용어로서의 쓰임을 기술하였는데 ‘意思’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뜻풀이만 제시하였다. 한편, (10)-(13)에 쓰인 한자어 중 ‘意志’는 개화기 사전류에 실려 있지 않으나 (11)의 ‘意思’는 《한불사전》과 《한영사전》에 모두 실려 있으며, (12)의 ‘志氣’는 《한영사전》에 등재어로 수록되어 있다.¹⁵⁾ (13)의 ‘本

15) 아래의 (1)은 ‘意思’에 대한 《한불사전》과 《한영사전》의 기술을, 그리고 (2)는 ‘志氣’에 대한 《한영사전》의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불사전》의 현대어 역은 이은령 외(2014)에 의한 것이다.

(1) 가. 의수[EUI-SA] 意思. Esprit, intelligence, intention, but.(지성, 지능, 의도, 목적) 〈한불사전 32〉

나. 의수 乙. 意思(뜻)(생각) Thought ; idea. See 의향 〈한영사전 51〉

意’는 앞의 예문 (8)에서 ‘目的’에 대한 번역어로 쓰이기도 하였는데, 《한불자전》과《한영자전》 모두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¹⁶⁾

3.4. 유사한 의미의 신생 한자어들이 공존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유사한 의미의 개화기 신생 한자어들이 공존하는 경우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 (14) 가. 다만 忠孝에 在_ㅎ야 然_ㅎ을 뿐 아니라 凡百의 行爲가 一이라도 身體의 健全_ㅎ을 相_ㅎ 須_ㅎ치 아니_ㅎ함이 無_ㅎ니 故_ㅎ로 德行을 修_ㅎ며 公義를 養_ㅎ야 人倫의 本務를 完全히 亨_ㅎ고져 홀진대 반다시 身體의 健康_ㅎ을 持保_ㅎ함이 可_ㅎ니라 <권1 제2장 體育>

(2) 지괴 s. 志氣(뜻)(기운) Energy ; determination. See 의취 <한영자전 758>

- 16) 《倫理學教科書》에서 ‘本意’는 3회 확인되는데 2에는 앞서 제시한 예문 (8)과 같이 ‘目的’에 대한 번역어로 쓰인 경우이며 다른 1에는 예문 (13)이다. 한편, ‘本意’에 대한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의 기술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의 기술도 각각 (다)와 (라)에 함께 제시한다.

가. 본의[PON-EUI] 本意. sa pensée propre; sentiment propre; intention particulière (자신의 고유한 생각|본래의 감정|특수한 의도) <한불자전 333>

나. 본의 s. 本意(뜻)(뜻) Original intention ; first design. See 주의 <한영자전 431>

다. 「1」 본디부터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음. =본심.

(예문)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습니다

강 선생 본의와는 다르게 동네를 분열시키고 말았지요. <이호철, 이단자>

「2」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 =본심.

(예문) 부디 저의 본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결코 없습니다.

라. (1) 본래의 의도나 생각.

(예문) 당신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닙니다.

그녀는 본의 아니게 이 일에 말려들게 되었다.

(유의어) 본뜻(本-)(1)

(2) 본디 가진 참된 심정.

(유의어) 본정(本情)

현대국어에서 ‘本意’는 주로 ‘본의 아니게’와 같은 ‘본심’의 의미로 쓰이는데 《한불자전》과 《한영자전》에 제시된 용법에 비하면 다소 의미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으나 보다 폭넓은 의미로 쓰이던 전통 한자어 ‘本意’의 의미가 축소된 것에는 ‘目的’이나 ‘意志’, ‘趣旨’ 등의 신생 한자어들이 늘어나 의미가 세분화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나. 是れ獨り忠孝に於いて然るに非ず。其他凡百の行爲一として體軀の健全に待つ所あらざるはなし。是を以て孝悌忠信の徳行を修め、共同愛國の義心を養ひ、以て人倫の務を全うせんと欲せば、必ず先づ身體の健康を保たざるべからず。〈권1:8-9〉

(15) 가. 學問을 修함에는 資力과 天性 外에 또 各自의 身體 健全함이 此에 能堪호 與否를 顧念치 아니치 못호지니 學問을 修함은 甚히 嘉尙호 바 | 나 此를 因호야 其 健康을 反害함은 甚히 不可호 바 | 니라 健全은 萬事의 基礎 | 니 一切의 道德은 健康호 身體를 待호야 비로소 實行함을 得호느니라 〈권1 제6장 修學〉

나. 學問を為すには、其資力と天性との外、又各自の健康の之に堪ふるや否やを顧みざるべからず。學問することは甚だ嘉すべきことなれども、之が爲めに其健康を害するが如きは甚だ嘉すべきことに非ず。健康は萬事の基礎なり。一切の道德は健康なる身體を待て初めて實行するを得べし。〈권1:74〉

‘健康’과 ‘健全’은 모두 전통 한문에서 쓰이지 않던 신생 한자어인데 위의 (14)에서는 각각 일본어 원문 그대로 번역되었으며 ‘身體의 健全’과 ‘身體의 健康’이 동일한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¹⁷⁾ (15)에서는 일본어 원문에 ‘健康’이 4회 쓰였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원문 그대로 번역된 것에 비해 첫 번째는 ‘身體 健全’, 그리고 세 번째는 ‘健全’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볼 때 ‘健康’과 ‘健全’은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현대국어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듯하다. 다음의 (16)과 (17)은 각각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健康’과 ‘健全’의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16) 건강(健康) :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예문) 건강 상태. 정신 건강. 건강을 돌보다.

「비슷한말」 건승(健勝)

(17) 건전(健全) : 「1」병이나 탈이 없이 건강하고 온전함.

「2」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

(예문) 건전 오락. 건전 가요.

(17)의 ‘健全’의 경우, 첫 번째 뜻풀이는 ‘健康’과 유사한 용법이나 그에 대한 예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국어에서 ‘健全’은 신체보다는 주로 사상이나 사물 등에 대해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체에 대해 쓰이는 경우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

17) ‘健康’은 박영섭(1999), 최경옥(2000), 송민(2007)에서 개화기 신생 한자어로 언급된 바 있으며 이한섭(2014)에는 ‘健康’과 ‘健全’이 모두 실려 있다.

신'(A sound mind in a sound body)이라는 표현 정도로 제한적인 듯하다.¹⁸⁾ 이렇게 볼 때 '健康'과 '健全'은 유의 관계의 신생 한자어로 서로 공존, 경쟁하다가 '健全'의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健康'과 '健全'의 의미 영역이 달라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¹⁹⁾

4. 나오며

지금까지 일본의 《新編倫理教科書》를 저본으로 하는 《倫理學教科書》의 한자어 번역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개화기 신생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어 원문의 신생 한자어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資料', '所有權', '社會', '幸福' 등), 저본의 신생 한자어('拒否', '理性', '支配' 등)가 전통 한자어로 번역되는 경우, 신생 한자어('目的', '意志' 등)와 전통 한자어가 공존하는 경우, 유사한 의미의 신생 한자어들이 공존하는 경우('健康'과 '健全')로 나누어 각각의 예들을 검토하였다.

개화기 신생 한자어는 초기부터 쉽게 국어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통 한자어와 함께 공존하며 경쟁하다가 점차 자리를 잡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18) 《고려대한국어사전》 역시 '健全'이 '健康'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표현은 개화기 교과서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古語에云호되 健全호 精神은 健全호 身體에 在하다 하니 <初等小學(1906) 권7 제3과(身體의 健康)>).

19) '健全'의 의미 분화는 일본어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에는 '健康', '健全'의 유의어로 '衛生'이 쓰이기도 하였는데, 다음의 예는 이안구(2020:134)에서 제시된 것으로 일본어 저본의 '健康'이 '衛生上'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해당 부분은 1922년의 제3차 교육령 이후에 발간된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에서는 '衛生'으로 수정되었다.

가. 空氣에도 清潔호 空氣와 汚穢호 空氣가 잇서서 清潔호 것은 衛生上에 有益호고 汚穢호 것은 有害호지라 <보통학교용 국어독본(1907) 권4 제1과 新鮮한 空氣>

나. 空氣にも、また、清きと、けがれたるとあり。清きは、健康に益あれど、けがれたるは、有害なり。<國語讀本 尋常小学校用(1900) 권7 제8과 空氣>

'衛生'은 '생명을 지키다, 몸을 養生한다'라는 의미로 전통 한문에서도 쓰이던 한자어인데 'hygiology'의 번역어로 쓰이면서 의미 개신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日本國語大辭典》의 語誌 정보에 따르면 '健全'은 '健全學 The science of health, hygiene'이라는 항목이 《改正增補和英語林集成》(1886), 《漢英對照いろは辭典》(1888), 《言海》(1891) 등에 실려 있는데, 明治初期에 'hygiology'의 대역어로 '衛生', '衛生學'이 사용되고 '衛生局'이라는 정부기관의 설치로 일반화되면서 '健全'은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신적, 추상적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한자어 중 일부는 현대국어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당시 주로 일본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문헌을 저본으로 하는 개화기 번역 텍스트는 신생 한자어와 전통 한자어의 과도기적 교체 양상을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어학 연구에 있어 개화기 번역 텍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연구 자료로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의 개화기 한자어 연구는 어떤 것이 신생 한자어인가 하는 점에 초점이 놓여 있었으며 신생 한자어 이전에 유사한 의미로 쓰이던 전통 한자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본고는 개화기 독본 교과서를 살펴본 이안구(2020)에 이어 修身 教科書 《倫理學教科書》를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의 번역 및 전통 한자어와 신생 한자어의 공존 양상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서구 신문물의 수용으로 생겨난 많은 어휘들 중 ‘汽車’나 ‘電話’처럼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구체 명사가 아닌 추상명사의 경우에는 그다지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였는데 본고에서 살펴본 《倫理學教科書》는 문헌의 특성상 추상명사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화기 어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倫理學教科書》의 한자어 중 비교적 흥미로운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았으나 미처 다루지 못한 한자어들에 대해서는 개화기의 다른 문헌에서 쓰이는 양상을 포함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개화기 번역 텍스트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개화기 한자어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자어들이 여러 문헌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비교하여 살펴으로써 신생 한자어가 국어에 정착하는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한자어들 간의 공존 및 경쟁 양상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서구 문물의 수용으로 인한 신생 한자어의 도입은 한·중·일 3개국에서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소영(2011), 한말 修身教科書 번역과 ‘국민’ 형성-《倫理學教科書》와 일본 《新編倫理教科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59, 7-45쪽.
- 박영섭(1996),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교과서·신문편》, 박이정.
- 박학래(2021), 申海永 編述의 《倫理學教科書》에 대한 재검토, 《도덕윤리과교육》 72, 193-222쪽.
- 송 민(1979), 언어의 접촉과 간섭 유형에 대하여, 《어문집(성신여대)》 10, 29-57쪽.
- _____ (1989), 開化期 新文明語彙의 成立過程, 《어문학논총(국민대)》 8, 51-65쪽.
- _____ (1999), 開化初期의 新生 漢字語 受容, 《言文学論叢(국민대)》 18, 19-38쪽.
- _____ (2000), 開化期 國語에 나타나는 新文明 語彙, 《어문학논총(국민대)》 19, 25-57쪽.
- _____ (2001a), 開化期の 新生漢字語 研究(1), 《어문학논총(국민대)》 20, 33-77쪽.
- _____ (2001b), 근대어 ‘自由’의 의미 확대, 《새국어생활》 11-1, 117-122쪽.
- _____ (2002), 開化期の 新生漢字語 研究(2), 《어문학논총(국민대)》 21, 53-95쪽.
- _____ (2003), 開化期の 新生漢字語 研究(3), 《어문학논총(국민대)》 22, 1-33쪽.
- _____ (2007), 개화기 국어에 나타나는 신생어와 관용구,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 회자료집》 201-211쪽.
- _____ (2018), 開化期 신문명과 新生漢字語의 확산, 《어문연구》 46-4, 7-26쪽.
- 신일철(1987), 普專草創期の 近代民族主義思想-西歐學問의 受容과 「忠君愛國」의 國家意識의 自覺過程, 《近代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 1-63,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안구(2020), 《개화기 교과서의 문헌학적·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령·김영주·윤애선 옮김(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사전》, 소명출판.
- 이한섭(2014),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 최경옥(2000), 開化期 翻譯 漢字語의 受容과 流入, 《일본어학연구》, 2, 293-309쪽.
- 페데리코 마시니(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 李漢燮(2010), 《近代漢語研究文憲目錄》, 東京堂出版.
- 李安九(2025), 近代韓國의 讀本教科書『初等小學』의 底本에 關する 再考, 《岡山大學教育推進機構教育研究紀要》3, 76-90쪽.
- 海後宗臣·仲新(1969), 《近代日本教科書總說》, 講談社.
- 唐沢富太郎(1956), 《教科書の歴史》, 創文社.

- 佐藤亨(1986),《幕末・明治初期語彙の研究》, 桜楓社.
- _____(2007),《現代に生きる幕末・明治初期漢語辞典》, 明治書院.
- 陳力衛(2001),《和製漢語の形成とその展開》, 汲古書院.
- _____(2019),《近代知の翻訳と伝播: 漢語を媒介に》, 三省堂.
- 惣郷正明・飛田良文(1986),《明治のことば辞典》, 東京堂出版.

ABSTRACT

On the Translation of Sino-Korean Vocabulary in the Early Modern Moral Education Textbook 《*Ethics Textbook*》

Ankoo, LEE

This study examines the *Ethics Textbook* (1906) by Shin Hae-young, which is based on the Japanese *New Edition Ethics Textbook*, while also investigating how Sino-Korean terms from the Japanese original were translated.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of Korea, the introduction of Western modern civilization led to the influx of numerous newly coined Sino-Korean terms. While some of these new terms were readily integrated into the Korean lexicon, others coexisted and competed with traditional Sino-Korean words or alternative newly coined Sino-Korean terms, gradually becoming established or undergoing semantic changes. By comparing the *Ethics Textbook* with its Japanese source text, this study categorizes translation patterns into several types: case in which newly coined Sino-Korean terms were adopted directly from Japanese original; cases where such terms were translated into traditional Sino-Korean equivalents; cases in which both new and traditional Sino-Korean terms coexisted; cases where newly coined Sino-Korean with similar meanings coexisted. Each of these pattern is examined in detail to elucidate the dynamic process of linguistic adaptation in the early modern Korea. Early modern translated texts based on Japanese source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the transitional features of Sino-Korean vocabulary in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as well as the patterns of adoption and adaptation of Sino-Korean terms via Japanese. The *Ethics Textbook* serves as a significant resource for studying the vocabulary of early modern Korea, as it contains many abstract nouns that have not yet been sufficiently examined.

Keyword: 《*Ethics Textbook*》, translated text, early modern Sino-Korean terms, adoption and adaptation of Sino-Korean terms